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청취자들의 힘입니다”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700회

타 방송사들 이웃돕기 기폭제 역할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보시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금 오전 9:05~10:00)’이 오는 12월 10일로 700회를 맞는다.

불교방송이 ‘거룩한 만남’을 시작한 1991년만 해도 종교방송은 물론 KBS, MBC 등의 유수한 방송사들도 이웃돕기 모금에 적극적이지 않은 때였다. 당시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BBS 불교방송이 이러한 모금운동을 펼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고 주변의 만류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만남’은 1회당 500~1000만원의 성금을 모았고, 다른 방송사들이 이웃돕기 모금운동을 펼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방송에 소개된 성금 수혜자들은 정부로부터 긴급구호 대상자로 보호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생존문제에 부딪쳐 힘겹게 삶의 끈을 붙잡고 있는 절박한 이웃들.

‘거룩한 만남’은 지난 13년 동안, 유명인사나 재산가의 뭉텅이 돈이 아니라 순수한 청취자들의 참여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우리 주변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왔다는데 의미가 크다.

‘거룩한 만남’을 듣는 청취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반신불수의 몸으로 다리에 타이어를 대고 기어 다니며 리어커를 끌며 수세미와 손톱깎이, 이쑤시게 등을 팔아 번

거룩한 만남 제작팀의 취재(오른쪽) 및 성금전달 모습.

한달 수익금 40만원 전액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 달라’고 선뜻 기부한 뇌성마비환자. 1만원 성금을 계좌이체 시키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3만원 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뗀 트럭운전기사 아저씨. 결혼식 때 들어 온 축의금 400만원을 들고 불교방송으로 직접 성금을 전달한 신혼부부. ‘거룩한 만남’을 듣고 발심해 2천 만원의 성금을 내놓은 간암 말기의 모 그룹회장 등등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성금을 줄잇게 했다.지금까지 모금된 총액은 약 34억 원. 이 성금은 어려운 750여 세대와 ‘나눔의 집’, ‘둥지마을’ 등을 포함한 10여개 단체에 전달됐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한 세대 한 세대가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하게 지원한 것도 ‘거룩한 만남’의 돋보이는 점이다.

꾸준히 이어온 이웃돕기의 공로를 인정받아 ‘거룩한 만남’은 지난 1992년과 1998년 한국방송대상 2회 수상을 비롯해 1993년에는 한국프로듀서상 진행자상, 2001년 ‘이달의 PD상’ 등을 받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는 최윤희 PD는 “불교방송이 건재하는 한 ‘거룩한 만남’을 통한 사랑의 리퀘스트는 계속 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코너와 아이디어 계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4회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맡아온 도현 스님(서울 상도동 정혜사 주지)도 “우리 주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루빨리 무거운 업연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따뜻한 보시행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는 감회를 밝혔다.

12월 10일 생방송될 ‘거룩한 만남’ 7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과 역대 리포터들과의 방송 뒷얘기, 불자 연예인 김흥국, 정수라, 서민정, 옥주현, 앙드레 김, 이승철 씨와 함께하는 이웃돕기모금운동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와 11월 18~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골수기증 캠페인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들과 2500번째 골수기증 신청자인 조희정(왼쪽 세번째)씨가 기념촬영했다.

‘골수 기증자 2500명 돌파’

생명나눔실천본부 캠페인 실시 6개월만에

12월 3일 ‘회원만남의 날’ 행사

생명나눔실천본부가 6개월만에 2500명의 골수기증자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이사장 현성)와 공동으로 11월 18일~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나눔’을 주제로 제 28차 골수기증캠페인을 개최해 올해 골수기증자 확보 목표였던 2500명을 조기에 달성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청소년교화연합회 실무자 자원봉사자 40~50명이 참가한 이날 캠페인에서 채혈 90건을 통해 87명의 골수기증희망자가 등록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골수기증캠페인에 2500번째로 등록한 조희정씨(20)에게는 구급함과 책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의 검사비 지원을 받아 전개된 생명나눔실천본부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사업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매주 한차례 종로타워 앞에서 불자연예인들과 7명의 홍보팀이 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는등 담당 실무자인 이혜숙 사무총장, 홍은미 부장 등이 여름휴가도 반납하면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

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경주 불국사 · 대구 동화사 · 김천 직지사등 사찰과 동국대 중앙승가대등 학교, 대학로 문예회관 앞 · KBS본관 앞 · 부산 용두산 공원 등 전국 곳곳을 찾아가며 28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했다.

홍은미 부장은 “지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를 종일 내다보면 어느새 목소리가 쉬고, 다리는 붓기 일쑤였다”며 “고생은 했지만 큰 자비를 실천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3일 오후 4~9시에

골수 기증을 위한 3cc 채혈 모습.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골수기증희망자로 등록한 회원을 초청해 ‘회원만남의 날’ 행사를 갖는다.

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차와 대화, 초청자 인사, 골수기증 등록회원 소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연대사업을 진행해온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와 특별봉사회원 감사장 수여, 저녁공양, 작은공연, 이혜숙 사무총장 인사로 회향된다. (02) 734-8050

김원우 기자

따뜻한 나눔축제 성황

대구 보현암, ‘2일 장터…1천여명 동참’

“스카프 얼마예요?” “장난감도 있네, 우리 손자가 좋아하겠는걸.”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한 입시학원 1층 로비에는 찹쌀, 흑미를 비롯한 우리 농산물과 각종 건어물, 내의, 스카프, 어린이 장난감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진열됐다. 대구 수성구 보현암 신도회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따뜻한 나눔 축제’를 개최한 것.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작은 사랑을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보현암은 신도 100여명 남짓의 크지 않은 자그마한 포교당이다. 그러나 뜻 깊은 일에 모든 신도가 나섰다. 3일 전부터는 노보살들까지 나서 청국장도 띄우고, 무말랭이도 말리고, 김치도 담그며 맛있는 먹거리를 장만했다. 여기저기서 후원품도 답지했다. 스카프 도매업을 하는 신도의 지인이 손수건과 스카프 500점을, 장난감 가게를 하는 불자는 재고품을 모두 기증했다. 게다가 보현암 다도회 회원은 이틀간 따뜻한 차를 보시하겠다며, 녹차를 비롯해 인산오룡 용정차 국화차 등을 준비했다. 이틀 동안 1000여명이 넘는 대중들이 다녀갔다.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이란 말들을 쓰는데 그들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불우할 수 있기에 ‘불우이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말했다.

보현암 신도회는 ‘따뜻한 나눔 축제’의 수익금 전액을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돕기에 회향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25242’ 참여하고 福 지으세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2만5천 결식아동돕기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대학생불자들이 대구시내 결식아동 돕기에 나선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대학생불자회(이하 대불회)는 12월 11일 오후 6시 영남불교대학 3층 큰법당에서 ‘제 2회 25242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대불회는 대구시내에만 2만 5천명이 넘는 결식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사명에 ‘25242’를 넣었다. 또 이번 행사의 공연티켓 대금 2000원도 결식아동 한끼의 점심 값에 맞춰 책정했다.

대불회 회장 이지현(계명대 식품가공학과 2학년)양은 “티켓 한 장을 구입한다는 것은 대구시내 한명의 결식아동에게 한끼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풋풋하고 다채로운 응원, 패션쇼 공연과 독도 수비대의 독도사진전, 리틀발레무용학원 초등생들의 발레 공연, 환경동화구연에서 대상을 수상한 강민경 양의 동화구연, 댄스 스포츠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다.

영남불교대학 들어오는 입구에는 떡볶이 어묵, 뽑기 등 추억의 먹거리 바자회가 열리고, 염주만들기, 컵 등 만들기, 탁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영남불교대학 대불회는 작년 활동사진과 홍보 전단지 등을 들고 이번 행사를 위해 1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대구백화점 앞에서 거리홍보캠페인을 나갈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02)737-888,1(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 · 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나눔의 성금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장지원보살 – 19만원
충주 광덕사 밀양 용정사 김선문 강병도 김원우 – 27만3천410원
총 누적금액: 28,181,070원

▌살림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연말을 맞아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1차로 11월말 서울경기지역 12개 종립학교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금 접수에 많은 동참바라며, 올 한해 전국에 배포한 ‘나눔의 저금통’도 수거하고자 합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저금통 접수

서울 광진구 중곡3동 샛별어린이집(원장 김재순)	저금통– 120개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신일미용실(원장 함영숙)	저금통– 5개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